

광주 실업고생 40% 전공 무관 실습

현장실습을 나간 광주지역 특성 화고·마이스터고 학생 10명 중 4명이 전공과 무관한 현장에서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홍관희 공인노무사는 2016년 광주지역 현장실습생 1926명 중 41.4%(797명)가 전공이 불일치했다고 밝혔다.

100% 전공 불일치를 보인 업종은 농업, 영농종사, 요식업, 의료이고 무역·유통·판매 분야도 전공 불일치율이 높았다.

전체 인원 중 1747명(90.7%)이 정규직 형태로 고용됐으며, 기간제나 시간제근로 등 비정규직도 확인

농업·요식업·의료 100% 불일치 하청업체 불법 파견 의혹도 제기

됐다.

정규직 중 36%가 전공과 무관했다. 하청의 경우 불법 파견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전공 연관과 무관하게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전공 불일치율이 높은 학과는 전체 42개 과 중 19개 과로 간호과 건축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과, 글로벌디자인과, 디자인과, 디지털접산과, 보건행정과, 비서사무서비스과, 산업설비검사과 등이 있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1059개 업

체 중 102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81개 업체가 주소나 전공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파견 의심 업체는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 위반 의혹이 있고 일부 업체는 정규직으로 포장했으나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홍 노무사는 "파견형 현장실습업체 중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퇴출해야 하고 행정감독 관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청소년도동인권센터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했다.

2016년 실습인원은 13개 학교, 1926명이며 1059개 업체에 파견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주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올해 2월1일 기준으로 현장실습생 1584명 중 전공 불일치는 18%(28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교육과정과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조인호 기자

“장만채 교육감 자사고·외고 폐지 반대 유감”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는 10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자사고·외고 폐지 유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타 시도 교육청이 교육 정상화 일환으로 자사고·외고 폐지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번 행보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교육희망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 교육감이 차기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으로 자신을 띄우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지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희망연대는 “지난 5월 말과 6월 초에 민선2기 3년을 맞아 도교육청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회를 4차례 진행한 결과 자유학기제 확산과 무지개학교 사업,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민관 거버넌스 사업 등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희망연대는 “교원 업무와 연구사업, 공모사업 급증으로 학교는 허덕이고 있고 취업률 1위 이면에는 질 낮은 일자리와 인권, 안전이 위협적으로 내몰리는 아픔이 있다”며 “무지개학교는 숫자만 늘릴 뿐 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방향성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교육희망연대는 “시베리아 독서토론회차학교와 선상무지개학교는 소수 특성 사업이라는 지적 등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고 취임 초기 긍정 평가했던 무상교육, 보편적복지 등 정제되거나 후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건너면 안돼요 서울·경기남부와 충청 지역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0일 오후 경기 광주 경안천 형석공원에서 시민들이 호우로 유속이 빨라져 출입 통제된 다리를 건너고 있다.

광주 유통 농산물 949kg 잔류농약 초과·폐기 조치

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16건 적발

광주지역에서 유통되는 일부 농산물에서 다이아지논 등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량 폐기조치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 156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949kg)이 농약 잔류량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 검사는 광주 서부·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마트, 재래시장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20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알타리무 잎·부추·깻잎 각 2건, 숙감·상추·치커리·엇갈이배추·가래·쌈귀·당귀·취나물·잡나물·열무 각 1건에서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은 다이아지논(Diazinon)과 디니코나졸(Diniconazole) 등 살균제 5종,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비렌트린(Bifenthrin) 등 살충제 7종 등이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 생산지에 대해서도 관찰 기관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신봉우 기자

대걸레로 의붓아들 폭행 30대 집유

법원이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어린 의붓아들을 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의 수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지역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알루미늄 재질

의 대걸레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B(9)군의 허벅지와 가슴·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같은 장소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로 B군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군이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준정 기자

문 열려진 차량서 월급 훔친 40대 장애인 구속

고흥경찰서는 10일 문이 열려진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애인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7분께 고흥군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A(48)씨의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42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언어와 청각장애가 있는 유씨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기 위해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A씨가 직원에게 월급을 주려고 차량에 보관해둔 돈을 훔쳐 의류 구입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밤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에서 유씨가 수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검거했다.

선착장서 낚지 100마리 훔친 직장동료 검거

여수해양경찰비안전서는 10일 인적이 드문 새벽 선착장에서 어획물을 훔친 김 모(37) 씨와 박 모(25)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오전 1시 40분께 보성군 득량면 선착장의 어선계류용 바지선에 들어가 낚지 100여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회사 직장동료인 이들은 좋은 값을 받기 위해 훔쳐 갔는데 그물망에 넣어 비닷속에 보관해 둔 낚지를 훔쳐 나눠 먹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이들은 검거 당시 물계를 잡기 위해 바지에 갔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선착장 CCTV 영상에 찍힌 모습과 승용차 등을 토대로 한 달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앞서 여수해경은 지난달 6일 여수시 국동항에 계류 중인 어선 들어가 위판을 위해 보관해둔 낚지 160여마리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낚지와 소라 등 어획물을 훔친 유모(53) 씨를 아간선박잡입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셀프 세차장·빨래방 동전교환기 턴 3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셀프 세차장과 빨래방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만 턴 혐의(상습절도)로 조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 한 셀프 세차장에 침입 동전교환기에서 30만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셀프 세차장·빨래방 10여 곳에서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세차장과 빨래방 동전교환기에 항상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새벽시간에 공구로 세차장 사무실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동전교환기 열쇠를 쥔 뒤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형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임택명 기자

‘20여 년 만에 만나 또’ 여성 2인조 절도범

20여 년 전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또 다시 절도를 했다 입건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시장상인의 앞치마에 있던 돈을 소매치기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65·여)와 B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 45분께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상인 C씨(33·여)의 앞치마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혼잡한 틈을 타 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 B씨는 C씨가 좁은 통로에 들어서자 앞치마에서 40여만원을 훔치고 A씨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20여 년 전 교도소에서 만나 아는 사이로 최근 다시 만나 함께 잠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이들이 돈을 나눠 갖는 장면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진식품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